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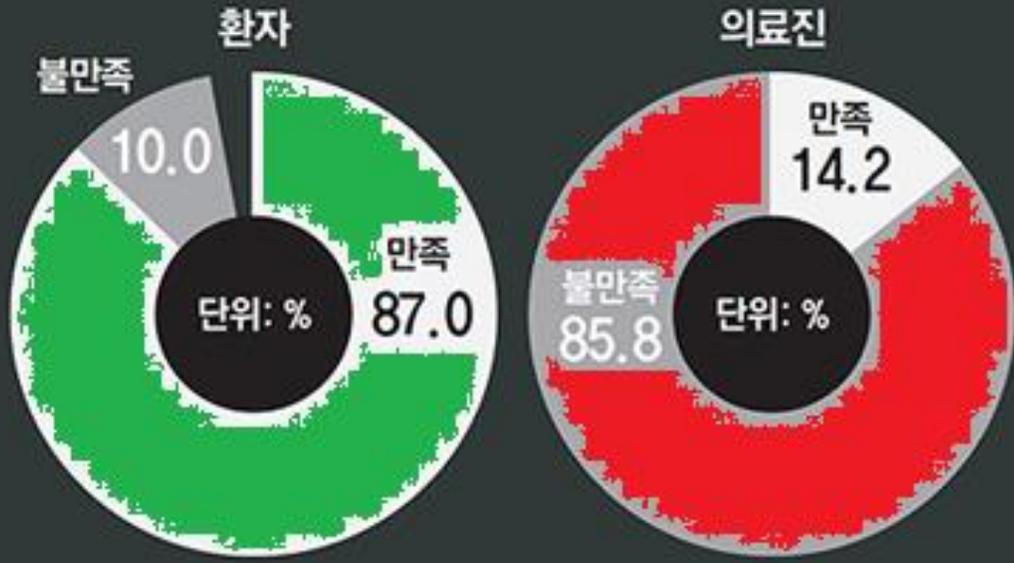


코로나 이후 경제

비대면 경제

은평성모병원 전화 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

2월 21일~3월 9일 환자 906명, 의료진 155명 조사(일부 무응답).



자료: 은평성모병원

- 수요자 취향/선호 비대면으로 전환
- 공급자는 기존 대면 방식 고수
- 의료-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수요자? 공급자?

의료 전달 체계 붕괴?

- ❖ 상급 병원을 대폭 늘리면 안되나?
- ❖ 또는 비대면 진료는 동네 의원만 허용?

MEDI:GATE NEWS

미래를 향한 의료 미래를 여는 뉴스

의료계.시민단체 원격의료 반대 한목소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되고 기업 돈벌이만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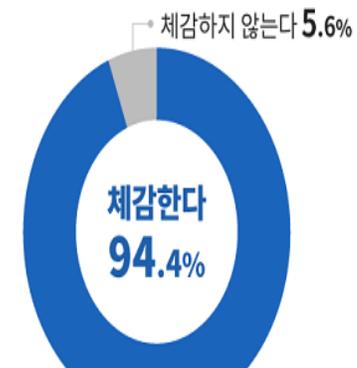
3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진료 용어 변경...병의협, 당시 이미 법 적용범위 확대 우려

기사입력시간 19.07.29 06:15 | 최종 업데이트 19.07.29 06:18



‘상급병원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에 관한 조사

Q. 최근 상급병원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체감하십니까?



대학의 소멸?

❖ 온라인 수업 → 학습 질 저하 → 유튜브와 무슨 차이?
→ 등록금 거부 → 대학 존재 기반 붕괴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돌입

등록 : 2020-05-14 22:17 수정 : 2020-05-14 22:27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14일 기자회견
소송인단 모집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서기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영국·일본 대학생도 요구"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한다고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inerva: The Founding Class systems - Fullblilly of Memory II (HCI)

Where does the robber put the money he gets ...

in his back pocket
in his side pack
in his side jean pocket
in his inside jacket po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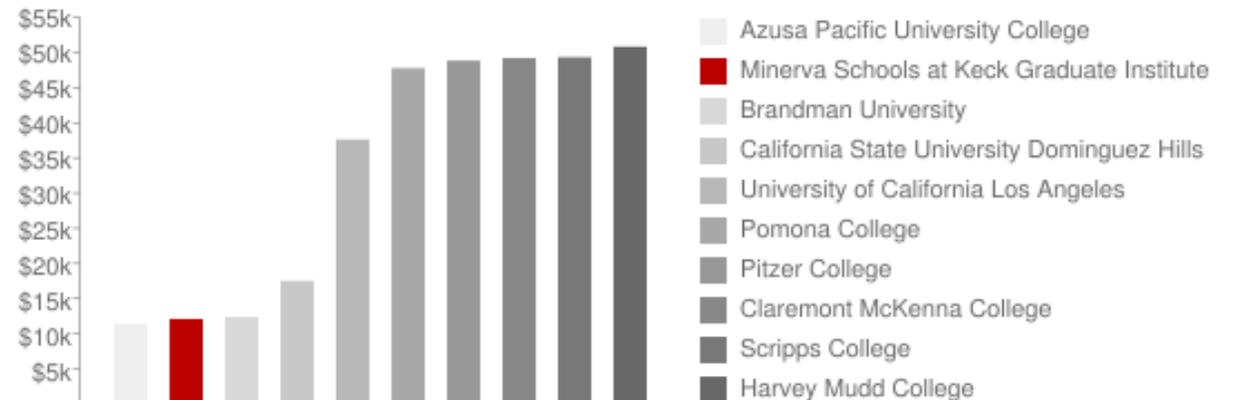
4:01 / 6:29



미네르바스쿨 "올해 첫 졸업생 진로,
아이비리그보다 성과"

Minerva School at KGI

- ❖ No Campus
- ❖ 수업은 온라인
- ❖ 생활은 7개 도시 기숙사
- ❖ 등록금은 1/5
- ❖ 성과는 최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

- 이윤 배당
- 정원 자유
- 캠퍼스 없음
- 기숙사 상업지역에 소재
- 교육과정 재량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는 이런 학교를 허용할 수 있나?

코로나가 바꾼 외식업계 풍경...'배달'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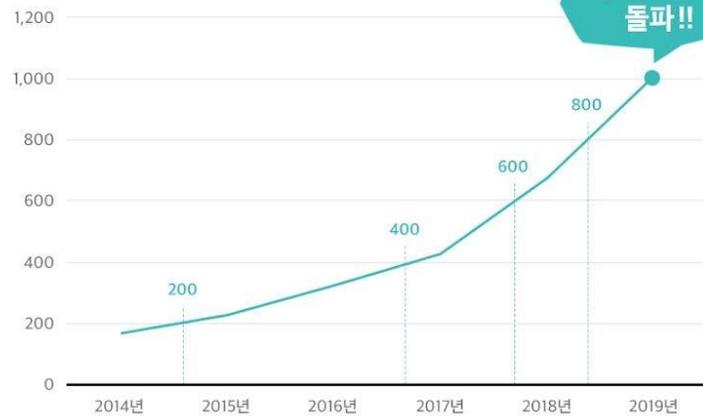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외식업계 매장 매출 급감
배달로 부가수익 노리는 레스토랑 늘어
패밀리 레스토랑에 호텔 레스토랑까지
프로야구 개막도 배달 수요 증가에 호재

등록 2020-05-15 오전 6:30:00
수정 2020-05-15 오전 6:30:00



배달의민족 월간 순방문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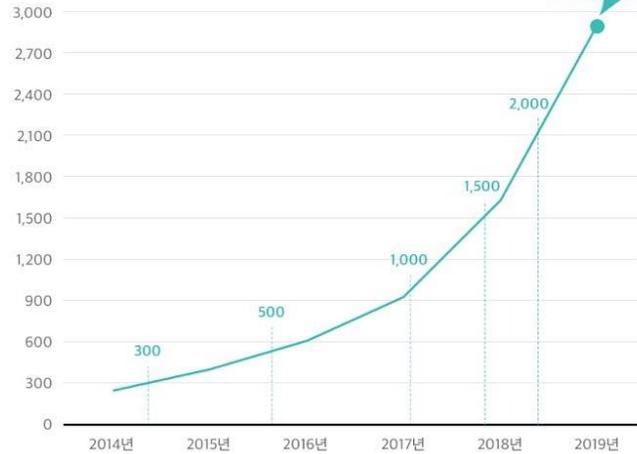
(단위: 만 명)



(출처: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월간 주문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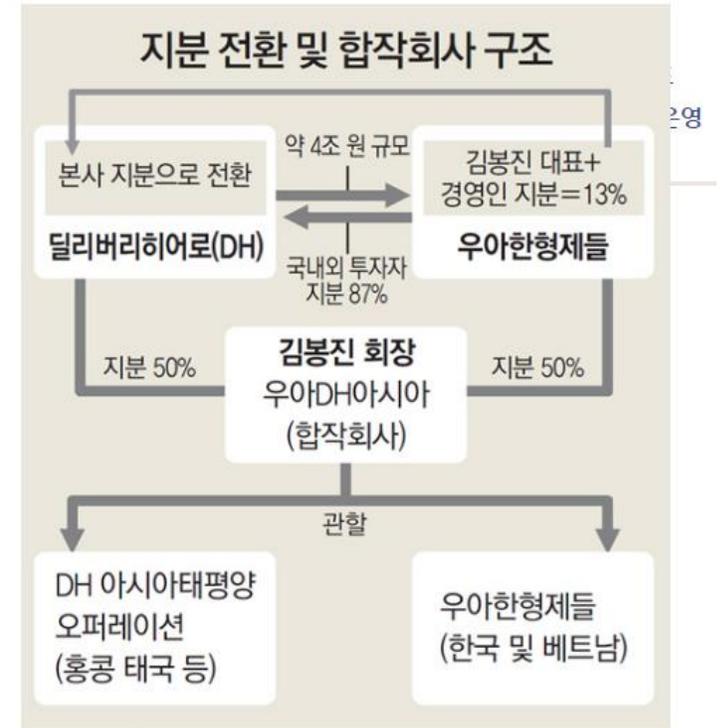
(단위: 만 건)



(출처: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김재형 기자, 주애진 기자 | 입력 2019-12-14 03:00 | 수정 2019-12-14 04:41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은 살인" ... 소상공인들 반발 커진다

김민호 기자 | 승인 2019.12.27 17:25 | 댓글 0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하 심사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TV/캡처)

'배민' 저격 이재명, 공공배달앱 개발 본격 시동...군산 배달앱 무상사용

2020-04-09 15:06:00 편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를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에 대한 규를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 News1

대중도 Anti-Business

■ '공공배달앱' vs. '배달의민족' 감성분석 · 네이버-다음 합산기준



| | |
|------|-------|
| ■ 긍정 | 83.1% |
| ■ 부정 | 16.3% |
| ■ 기타 | 0.6% |



| | |
|------|-------|
| ■ 긍정 | 3.7% |
| ■ 부정 | 95.5% |
| ■ 기타 | 0.8% |

음식업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 ❖ 가상식당: 매장 없이 배달로만 운영하는 식당
- ❖ Share Kitchen: 배달 전문 식당끼리 주방 공동 사용



‘창업비용 23분의 1로’...외식 창업의 새 대안 ‘공유주방’

[커버스토리=2019 트렌드, 주방이 사라진다]

-위국, 공간 빌려주고 인큐베이팅도...배달 통해 무점포 창업 가능



영국 Deliveroo가 운영하는 Dark Kitchen, Editions.
주방은 임대료 싼 곳에. 판매는 배달로만

❖ 디지털 뉴딜, 비대면 생활, 내수 확대

❖ 한국인에게 가능한 과제일까?

❖ 법-정치 동원한 기득권 고수, 유아적 약자 보호 가치관
못 버리면 불가능